렉처콘서트, '걷기'로 출발합니다

광주문화재단, 서명숙 올레 이사장 14일 첫강연
김주연 설치미술가·나경수 전남대 명예교수 등
문화예술작은도서관 인문학강좌 21일부터 시작
진모영 다큐감독·민경숙 남도의례음식장 등 참여

서명숙

나경수

진모영

예술 강의(Lecture)와 공연(Concert)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렉처콘서트. 입체적이고 흥미로운 구성으로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광주문화재단의 대표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9년 시작돼 올해로 4년차를 맞은 렉처콘서트가 올해도 알찬 구성으로 시민들을 찾아간다.

또한 작은도서관을 매개로 인문학, 영화, 문화재, 미술 등 다양한 강연을 진행해 많은 이들에게 지적 체험과 힐링을 선사했던 문화예술 작은도서관 프로그램도 새롭게 시작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먼저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14일 저녁 7시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올해 첫 문을 연다. 강사는 제주 올레길을 만든 서명숙(사)제주올레 이사장.

'4차 혁명시대, 걷기가 더 필수다'를 주제로 강연하는 서 이사장은 제주올레길 탄생 배경과 문화와의 연계성 등을 이야기한다. 구체적으로 올레길을 걸으면서 느껴본 올레꾼들의 이야기를 비롯해 올레길 운영과 연관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역 문화 축제 및 프로젝트 성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생생하게 들려준다. 제주세관 홍보대사로도 활동 중인 서 이사장은 지금까지 '흡연 여성 잔혹사', '꼬닥꼬닥 걸어가는 이 길처럼', '놀멍 쉬멍 걸으멍-제주올레여행' 등을 펴냈다.

두 번째 렉처콘서트(5월12일)는 '물의 노래', '묵호' 등 시집을 비롯해 가요에세이 '번지없는 주막-한국가요사의 잃어버린 번지를 찾아서' 등을 펴낸 이동순(시인) 영남대 명예교수가 '노래로 들어보는 한국현대사'를 들려준다. 이어 박상철 서울대 의과대학 명예교수의 '장수시대에 필요한 사회적 문화'(6월9일),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의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덴마크에서 그 답을 찾다'가 펼쳐진다.

코로나시대 이후의 삶을 조망하는 시간도 마련돼 있다. 8월11일에는 김누리 중앙대 독어독문과 교수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주제로 시민을 만난다. 또한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의 '어제의 사랑과 내일의 사랑'(9월15일), 김주연 설치미술가의 '자연을 메타포한 예술'(10월13일), 나경수 전남대 국어교육과 명예교수의 '자연과 문화의 교감-명절음식'이 진행된다. 문의 062-670-7926.

문화예술 작은도서관의 인문학강좌는 오는 21일~22일 오전 10시 진모영 다큐멘터리 감독의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로 올해 첫 강좌를 시작한다. 전남대 법학과를 졸업한 진 감독은 제 6회 올해의 영화상 독립영화상을 수상했다.

이어 민경숙 무형문화재 제17호 남도의례음식장의 '정담이 오가는 전라도 음식'(28~29일), 한재섭 영화비평지 '씬1980' 편집장의 '민중미술과 이상호'(5월19일~20일), 백종욱 작가의 '광주와 베를린의 기념조형물 비교'(5월26일~27일), 오윤환 전 광주시립발레단 수석의 '발레리노 시각에서 바라본 발레란…'(6월16일~17일)이 펼쳐진다.

마지막 시간에는 오재형 다큐멘터리감독이 '예술 잡상인의 관심사'를 주제로 시민들을 만난다. 현재 수강 희망자 선착순 모집 중. 예약 문의 062-670-7968.

/박성천 기자 skypark@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풍류여정'

장원석 개인전, 5월29일까지 소암미술관

소암미술관(관장 양동호·광주시 남구 중앙로 83-1)은 지난해부터 '지역미술연구 연계전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매년 1명의 예술가를 선정해 그의 작품 세계를 연구하고 지역 미술의 흐름을 조망해보는 기획이다. 첫해였던 지난해에는 송유미 작가가 참여했고, 올해는 판화작가 장원석 작가를 초청해 전시회를 열고 있다.

장 작가는 '풍류여정'을 주제로 오는 5월29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다양한 판화 기법으로 작업한 20여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장 작가는 판화기법에 아크릴회화와 LED 조명을 활용, 현대적인 감각의 작업을 시도하며 독자적인 작품세계를 구축하고 있다.

전시작들은 그의 고유 기법인 '소멸판법'을 활용한 작품들이다. 소멸판법은 한 장의 판 표면을 계속해 깎아 내면서 그 과정을 종이에 찍어내 작업을 완성시키는 기법으로 마지막 프린팅이 끝나면 판면은 뚫려 본 모습을 잃은 앙상한 형체로 남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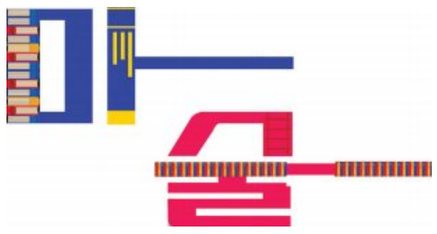
장 작가는 조각도의 섬세한 터치와 단색의 색채로 동양의 절경을 담은 고화(古畵)를 판화에 재해석했고 그 중심에 겸재 정선의 진경산수화가 있다.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작가의 시대정신과 실험정신을 엿볼 수 있는 작품들이다.

작가는 정선의 대표작인 '인왕제색도'를 비롯해 '삼부연' 등의 진경산수화를 선으로부터 파생된 이미지로 새롭게 해석했다. 편안한 색조 속 하늘빛 물줄기가 시원하게 보이는 '박연폭포'를 담은 '박생연'을 비롯해 각각 파랑과 빨강 단색으로 표현한 '삼부연폭포'와 '여산폭포'는 역동적이고 강렬한 인상을 준다.

'여산폭포'

조선대 미술학과에서 판화를 전공한 장 작가는 지금까지 10여차례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조선대, 미술대학 현대조형미디어학과 초빙객원교수, 광주현대판화가협회 회장, 국제판화교류회 사무국장으로 활동중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오페라 '마술피리' 가족과 즐겨요

광주시립오페라단 정기공연, 14~16일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모차르트 최후의 역작으로 꼽히는 오페라 '마술피리'는 200여년간 전 세계 공연장에서 숱하게 무대에 오르며 사랑을 받고 있는 레퍼토리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즐길 수 있는 줄거리와 아름다운 음악은 많은 팬들을 사로잡았다. 특히 최고의 기교를 자랑하는 콜로라투라 소프라노가 부르는 '밤의 여왕' 아리아는 오페라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한 번쯤 들어본 곡이다.

광주시립오페라단이 제9회 정기공연 작품으로 '마술피리'를 무대에 올린다. 14~15일 오후 7시30분, 16일 오후 3시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마술피리'는 왕자와 공주가 갖가지 시험을 통과하며 진정한 사랑을 이룬다는 내용을 환상적인 배경 속에 녹여낸 작품이다. 이집트 왕자 타미노는 밤의 여왕으로부터 악당 자라스트로에게 파미나 공주가 납치되었다는 사실을 전해듣고 마술피리를 받아 새잡이 파파게노와 공주를 구하러 떠난다.

이번 오페라는 다소 무거울 수 있는 클래식 오페라를 '도서관 대탐험'이라는 메타버스 형식을 도입, 어린 아이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 오페라 형식으로 각색해 선보인다.

주인공 타미노 왕자 역은 테너 김우경(한양대 교수)과 원유대가 더블 캐스팅됐다. 2004년 플라시도 도밍고 국제콩쿠르 한국인 최초 우승한 김우경은 독일 드레스덴 젬퍼 오페라극장·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주역가수로 활동했다.

파미나 역에는 박재은·류수진이, 밤의 여왕 역에는 여지영·유성녀가 출연한다. 파파게노 역에는 김경천·전종욱이, 파파게나 역에는 김에셀·신은선이 출연하며 서혜원·최효리·손진희·이예지·임지현·문주리·이하석 등이 호흡을 맞춘다.

예술감독과 연출은 소극장 오페라 공연으로 호평을 받은 정선영이 맡았으며 조정현 지휘자와 카메라타 전남(Camerata Jeonnam) 오케스트라가 호흡을 맞춘다, 합창 지휘는 황유순이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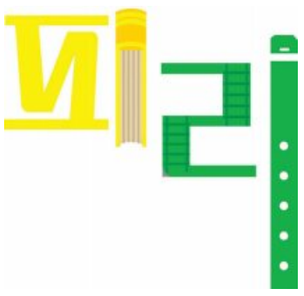
티켓은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티켓링트를 통해 구매할 수 있으며 전석 2만 원이다. 문의 062-412-2507.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정선영

김우경

박재은



일제만행 흔적, 생존자들 '제국의 휴먼'

전재홍 사진초대전, 6일~6월 15일 소아르갤러리

사진작가 전재홍은 일제 강점기가 남긴 흔적을 꾸준히 기록해오고 있다. 그는 1990년대부터 일제가 한반도 수탈 과정에서 사용한 건축물·시설을 촬영한 '제국의 평야', 일제가 물자 수송을 위해 전국 기차역에 세운 철도 급수탑을 기록한 '제국의 바벨탑' 연작을 발표해왔다.

2003년 한국에 유일하게 남은 신사를 카메라에 담기 위해 고흥 소록도를 방문한 그는 그곳에서 신사참배 거부로 손과 발이 절단된 한센인을 만나 후, 일본제국주의의 생존 피해자 기록에 절실함을 느낀다. 그리고 '제국의 휴먼' 시리즈를 시작한다.

전재홍 작가 초대전이 6일부터 6월 15일까지 화순 소아르갤러리(관장 조의현·화순읍 화보로 4439-10)에서 열린다.

'제국의 휴먼'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일본제국이 일으킨 침략과 전쟁에서 생존한 사람들을 작가가 직접 찾아가 촬영한 사진들로 구성돼 있다. 인물의 배경이 되는 곳들은 일제 만행의 흔적을 드러내는 장소 또는 생존자들의 피폐한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공간이다. '제국의 휴먼' 연작에는 일제에 의해 강제 노역·이주를 당한 사람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세균전 피해자 등이 담겨 있다.

이 시리즈를 시작한 이유에 대해 작가는 "우리가 모르고 있거나 잊혀져가고 있는 일제의 잔혹한 행위를 그냥 묻어둘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전시 기간 중에는 '제국의 평야', '제국의 바벨탑' 연작과 '제국의 휴먼'을 함께 엮은 사진집 '리틀 보이 Little Boy'도 구매 가능하다.

문의 061-371-8585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731부대 생존자 손전보,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 2005'

국립남도국악원, 10일 '국악이 좋다' 씻김굿 공연

국립남도국악원은 오는 10일 오후 5시 토요상설 '국악이 좋다' 공연으로 씻김굿을 선보인다. 〈사진〉

씻김굿은 망자(亡者)의 넋을 위로하고자 전라도 지역에서 행해져 온 굿으로, 가족과 마을의 평화를 기원하는 공동체적 축제의 의미를 담고 있다.

국악원은 코로나19로 침체한 사회 분위기와 움츠러든 문화예술계에 활력을 불어 넣고 함께 위기를 극복하자는 의미를 담아 씻김굿 공연을 무대에 올리기로 했다.

국립남도국악원 씻김굿은 진도씻김굿을 연주단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무대공연으로 재구성했다. 공연은 초가망석, 손굿쳐올리기, 제석굿, 넋올리기, 희설, 씻김, 고풀이, 길닦음, 액막음 등 진도씻김굿의 정수가 담긴 공연이다.

토요상설은 무료이며 '방역 거리두기'를 위해 선착순 190명을 모집한다. 국악원은 진도 읍내와 국악원을 오가는 셔틀버스를 무료로 운행한다. 또 공연 활성화를 위해 12월까지 공연 스탬프 쿠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참여한 관람객들에게 기념품을 제공한다.

공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남도국악원 누리집(http://jindo.gugak.go.kr) 혹은 061-540-4042 장악과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ACC '도시속 문화장터' 친환경 문화상품 창작자 모집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2022 아시아컬처마켓 '도시속 문화장터'에 참여할 친환경 문화상품 창작자를 오는 4월8일까지 모집한다.

'도시 속 문화장터'는 지역 문화예술 창작자들의 판로 확보와 시민들의 즐길거리 제공을 위해 오는 5월5일부터 8일까지 ACC 아시아문화광장에서 열린다. 올해는 어린이날을 맞아 미래 세대를 위한 친환경 장터로 구성된다.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문화상품 창작자를 대상으로 하며 총 35개 내외 팀을 선발한다. 분야는 친환경 공예품, 업사이클링 문화상품, 제로웨이스트 상품 등이며 신규 창작자 10개 팀에게는 창업, 디자인, 브랜딩, 장비 교육을 지원한다.

한편 ACC재단은 아시아컬처마켓과 함께 어린이가족문화축제 하우펀(HOW FUN)8 '함께 꿈꾸는 초록빛 세상', 업사이클링 워크숍 '이번 정류장은 플라스틱 정류장입니다' 등도 마련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ACC재단 누리집 참조.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